

A Strategy to Countermeasure Foreigner Crime for Establishing the Social Safety Net

- Focusing on the Gyeongbuk · Gumi Area -

Min Sang Cho⁺

Department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e, Baek Seok University, Cheonan, Chungnam,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end of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in Gyeongbuk · Gumi area, along with the change in its control. The official data provided by the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analyzed to assess the situation of foreigner crime in order to suggest its countermeasures. The newspapers in the major regional media were used to analyze the articles on foreigner crime in the area, focusing on how the criminal cases were handled during the specific period. This analysis confirmed the problems that the police in the area lacks capacity to control a growing number of foreigner crimes which have also become much more brutal.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of deploying a group of personnel solely committed to handle foreigner crime, considering the substantial foreigner population in the a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munity-based safety network. Third, the communities with a large cluster of foreigners need to be managed in consideration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Fourth, an exclusive channel for foreigners should be established in each community.

Key words: foreign crime, safety network, foreign areas, exclusive channel for foreigners

1.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생활공간이며, 특정한 사회발전 과정을 축적하고 있는 삶의 공동체이다. 삶의 공동체는 자연적 인위적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집단 공동체를 보호하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 등과 같은 위협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생활보장의 존속과 유지가 필요하다(Kim, 2009: 213).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낯선 요인의 등장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더욱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문화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은 1,822,781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3.5%에 해당한다. 2014년은 1,797,618명이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

⁺ Corresponding author: Min Sang Cho, Tel. +82-41-550-9157, Fax. +82-41-550-9027, e-mail. police01@bu.ac.kr

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 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15).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 사건의 보도는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한 사회적 두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로까지 인식되며 이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거주 외국인을 혐오하게 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와 관련하여 외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변화하는 국적별 외국인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언어권에 해당하는 외사요원을 특채하는 등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치안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비판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재평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여러 역할 중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들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제는 외국인 범죄도 사회 안전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방안이 더욱 개선되

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 경북·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환경 및 대응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북·구미 지역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문제의 발생과 대응의 변화가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경찰 및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의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경북 지역과 구미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역 내의 언론보도를 검토하여 재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이론적 배경

1. 사회안전망의 개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대한 정의는 국가관이나 사회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각 국가별, 학문 분야별, 연구 목적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Park, 2009: 889). 이에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을 노령·질병·실업·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사회보장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Lee, 2010: 69). 또한 사회안전망을 각종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생

Table 1. Definitions of social safety net

Subdivide	Definition
The Weldon Cooper Center for Public Service	Today's social safety net is a combination of programs that have responded to national concerns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The programs include social insurance initiatives, designed to assist all individuals who have paid into the system, such as Social Security, and means tested programs targeted to individuals or families based on economic need. Both social insurance and means-tested programs can be paid for by federal or state resources, or a combination thereof, and may be administered at either the federal or state level. All of these programs have evolved over time and continue to change as a result of public sentiment and political will.
Federal Safety Net	The Social Safety Net of the United States is made up of various Welfare Programs to protect low-income Americans from poverty and hardship. The programs are meant to be a safety net to catch Americans if they fall on hard times.

※ Source: <http://www.coopercenter.org/demographics/history-social-safety-net>, <http://federalsafetynet.com/social-safety-net.html>

활의 어려움을 개인이나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인간의 기본권의 유지가 필요할 때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체계로 정의하기도 한다(Park, 2005: 140). 국제통화기금(IMF)은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으로 인해 빈곤계층에 대한 악형양의 완화 수단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편적 시혜 및 삶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상황의 대비조치로 정의한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은 빈곤층과 경제침체, 자연재해 및 기타의 일시적 경제 역경으로 인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정한 소득보조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집합으로 말한다(Kim, 2008: 93; Lee, 2010: 71).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부처별 정책은 다양한 부분에서 논의되어 준비되어왔다. 특히 정부부처별로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식 향상, 안전망 체계의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내의 복지와 건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사회집단별 보호 및 참여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진행되었다. 행정 영역에서는 과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난관리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지역사회와의 역할 강화방안 및 연계를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정책네트워크 형성에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 소방의 영역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재난발생 시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 강화 방안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 3.0’실현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은 국가안보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과 집단 대상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 수준의 안전과는 달리 개인 및 집단수준에서는 ‘안전과 보호’라는 안전지침이나 표준을 마련하여 각종 자연적·사회적 위기와 위협에서 개인과 집단의 삶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Gerber, 2007: 227-228).

2. 외국인 범죄의 개념

「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http://www.law.go.kr>).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이 해당된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14).

외국인 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하여지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는 첫째, ‘입국과 관련된 범죄’로 분류되며 이는 불법체류나 밀입국 같은 단순 범죄와 불법체류 등을 위한 여권위조 등의 범죄가 해당된다. 최근에는 여권의 위·변조나 사증의 위조와 같은 각종 서류의 위조 및 부정 취득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던 중에 일으킨 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의 일반적인 범죄를 의미한다. 합법적으로든지 불법적으로든지 일단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생활하는 중에 형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범할 경우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범죄’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는 입국 당시부터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 중에서 이들이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는 모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조직범죄적인 성격을 띠며, 이 중에서 일부 범죄는 국내의 범죄조직과 외국의 범죄조직이 연계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규모의 범죄 특성을 갖기도 한다(Choi & Choi, 1994: 84-111).

3. 외국인 범죄 전망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전망은 개별 범죄에 대한 예측과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예측으로 대분할 수 있다. 첫째, 폭력·교통·지능범죄에 대한 전망이다. 이 유형의 범죄를 살펴보면, 폭력범죄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력범죄의 증가 원인으로는 외국인 패거리폭력배에 의한 폭력범죄 및 외국인 지역사회 내의 고질적인 상습 주취 폭력이 새로운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내국인 기피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 비용이 낮은 대도시 주변이나 공단 배후 지역에서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기초질서의 준법 의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에 있어서 예방 및 대응,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Police Science Institute, 2015: 291-292). 이들을 방치할 경우 경미범죄에서 강력범죄까지 무질서와 범죄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강력범죄에 대한 전망이다. 살인·강도·강간 중에서 강간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외국인 혐오증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범죄자에 의해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2011년 103명에서 2012년 87명, 2013년 77명, 2014년 7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의 흉포화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반감을 불러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Police Science Institute, 2015: 294).

셋째,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한 전망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102,117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Police Science Institute, 2015: 298). 무엇보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노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불법 취업 및 유흥업소 취업 등의 성범죄, 폭력조직과의 연계, 졸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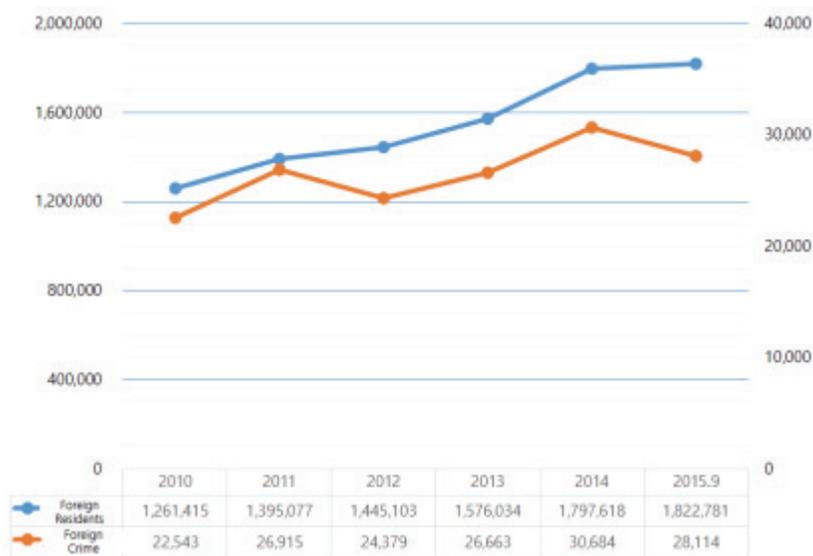


Figure 1. Peace prospects 2016

명서 및 추천서 등의 위조·변조 문제와 같은 다양한 불법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III. 외국인 범죄 실태 및 사례 분석

1. 체류외국인 인구 현황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는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다. 다음 <Table 2>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에 관한 것이다.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 및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외국인을 말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은 1,797,618명이다. 이는 2013년 대비 약14%가 증가한 것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체류외국인이 장기체류외국인의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부분이다. 불법체류외국인은 2012년 증가(2011년 대비 6%), 2013년 증가(2012년 대비 3%), 2014년 증가(2013년 대비 1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황은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사회통합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취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외국인 범죄 현황

1) 국적별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자 현황

다음 <Table 3>은 국적별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범죄자의 현황이다. 집계된 국가는 기타 국가를 제외하고 8개국이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은 중국인이 966,500명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중국인은 16,861명(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뿐만 아니라 미국과 베트남, 태국 국적의 외국인도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국가의 경우

Table 2. Foreign status by year(2010-2014)

(Unit: Person)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Foreign Residents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A long stay	1,002,742	1,117,481	1,120,599	1,219,192	1,377,945
A short stay	258,673	277,596	324,504	356,842	419,673
Illegal immigrant	168,515	167,780	177,854	183,106	208,778

*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annual report, 2015.

Table 3. Foreign residents & foreign criminal rate by nationality(2015)

(Unit: Person, %)				
Nationality	Foreign Residents		Foreign Criminal	
	Person	Rate	Person	Rate
Total	1,874,614	100	28,114	100
China	966,500	51.9	16,861	59
USA	144,546	7.7	1,383	5
Vietnam	135,901	7.3	1,681	5.97
Thailand	86,353	4.7	1,370	4.87
Philippine	53,843	2.9	390	1.4
Japan	34,776	1.8	338	1.2
Russia	17,200	1	291	1.03
Pakistan	11,719	0.7	213	0.75
Other country	423,776	22	5,685	20.2

* Source: Immigration policy division Statistics(2015).

Table 4. Foreigner crime status by local police agency(2009-2014.6)

(Unit: Person)

Year	Total	NP A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gu	Ul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am	Gyeongbuk	Gyeongnam	Jeju
2009	23,344	11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2010	22,543	26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2011	26,915	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2012	24,379	6	7,881	916	722	1,194	319	215	491	7,766	341	577	856	416	430	735	1,350	164
2013	26,663	7	8,144	1,045	804	1,244	352	233	672	8,689	345	624	934	465	465	897	1,444	299
Jun. 2014	14,056	7	4,225	515	419	784	165	135	409	4,580	158	389	526	243	218	389	753	141

※ Source: Foreigner investigation affairs,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2014).

423,776명(22%)으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국적별 체류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치안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화되고 있는 체류외국인의 국적을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

2) 지역별 외국인 범죄 현황

상기의 <Table 4>는 전국의 지방경찰청별 외국인 범죄 현황이다. 지방경찰청별에 따른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이를 토대로 외국인 담당 기관별 협력 관계를 논의할 수 있으며, 경찰의 경우 외국인 담당 경찰 부서 및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배치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중점적인 경찰활동의 전개와 밀집지역의 관리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지방청이 8,6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서울지방청 8,144명, 경남지방청 1,444명, 인천지방청 1,244명, 부산지방청 1,04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외국인 범죄의 발생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의 마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대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경북지방청의 경우 89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650명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68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도움센터와 외국인 범죄 피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시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경북경찰의 외국인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확인되고 있다.

3. 경북·구미지역 외국인 범죄 현황 및 사례

1) 경북·구미지역 외국인 범죄 현황

다음은 2014년 경북지역의 범죄 유형별 범죄 현황이다. 전체적으로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경주경찰서 관할이 19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35명으로 2순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폭력(25명)과 지능범(13명)이 발생하였다.

또한 경북지역의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청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중국(367명), 베트남(144명), 기타(125명), 우즈베크(52명), 미국(45명), 스리랑카(33명) 등 대표적인 국적은 9개로 분류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구미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35명이 발생하였으며 중국(73명), 베트남과 태국(16명), 기타(12명), 몽골(6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5. Foreigner crime status by typ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2014)

(Unit : person)

Types	Total	Murder	Robbery	Rape	Burglary	Violent crime	Intellectual offenses	Sexual abuse	Others (traffic, etc)
Agencies									
Total	850	2	3	18	53	210	92	7	465
Local agency	79		3	5	4	41	9		17
Gyeongju	191	1		4	13	40	15		118
Pobuk	35	1			9	10	4		11
Ponam	28				1	5	3		19
Gumi	135			1	6	25	13	4	86
Gyeong San	80			2	2	8	10		58
Andong	21				2	8	1		10
Kimcheon	28			3	2	1	4	1	17
Yeongju	15				1	4	2		8
Yeongcheon	37				4	8	8		17
Sangju	18				2	6	1	1	8
Mungyeong	6					2	1		3
Chilgok	87			1	3	25	9	1	48
Uiseong	6					2			4
Cheongdo	11					3	2		6
Yeongdeok	5								5
Uljin	6					2	3		1
Bonghwa	6					1	2		3
Yecheon	2						1		1
Seongju	21			2	2	7			10
CheongSong	3						3		
Yeongyang	2				1				1
Gunwi	1								1
Goleong	26				1	12	1		12
Ulleung	1								1

※ Sourc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reference center.

Table 6. Foreigner crime status by nationality,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2014)

(Unit : person)

Nation	Total	China	Vietnam	Mongolia	Thailand	USA	Russia	Philippines	Sri Lanka	Uzbekistan	Others
agencies											
Total	850	367	144	29	28	45	4	23	33	52	125
local agency	79	22	29					6	9	1	12
Gyeongju	191	91	40		1	5	3	1	9	20	21
Pobuk	35	15	5	1		4			2	1	7
Ponam	28	11	3	1		5		1	1	1	5
Gumi	135	73	16	6	16	4		3	2	3	12
Gyeong San	80	30	10	8	5	1			4	4	18
Andong	21	16				2					3
Kimcheon	28	12	4	4	1					2	5
Yeongju	15	11		1						2	1
Yeongcheon	37	13	7		1			2	2	3	9
Sangju	18	10	1	1				2		2	2
Mungyeong	6	6									
Chilgok	87	23	19			20		7	2	3	13
Uiseong	6	5				1					
Cheongdo	11	2	3			2				1	3
Yeongdeok	5	2			2	1					
Uljin	6	3	2	1							
Bonghwa	6	3			1						2
Yecheon	2	1									1
Seongju	21	5	2	4			1		1	3	5
CheongSong	3	1									2
Yeongyang	2		2								
Gunwi	1										1
Goleong	26	12	1	2	1			1	1	6	2
Ulleung	1										1

※ Sourc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reference center.

2) 경북·구미지역 외국인 범죄 대응 사례

다음은 경북·구미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범죄 사례와 대응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영남일보와 구미일보 및 인터넷 포털에서 '구미 외국인 범죄', '외국인'으로 검색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으로써 주요 기사로 보도되었던 내용을 선택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외국인 범죄 사례와 지역사회의 대응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안전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사례에 따른 시기별 대응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1996년 : 뛰는 외국인 범죄, 기는 경찰력...경북, 상반기 103건 발생

- 최근 시장개방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급증, 이들의 범죄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경찰의 외사(外事)부서 기능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 현재 경북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 산업연수생 3천명과 합법체류자 3백여 명, 그 외 불법으로 90일이상 도내에 머무르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 불법체류자 문제는 이미 범죄를 통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불거지고 있다. 올 1월부터6월말까지 경북도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는 1백3건에1백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2건 66명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
-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권은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 한 곳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찰이 실질적으로 이들을 검거해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 올 들어서만도 경찰은 1백여 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외국인이 대낮에 은행 강도짓을 할 만큼 외국인 범죄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력은 보잘 것 없다. 현재 경북경찰청 외사직원은 고작 40명. 경주 포함 구미경찰서에 거의 집중돼 있을 뿐 아예 1명도 없는 경찰서가 태반이다.
- 도내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외사부서의 한 직원은 이런 사정을 가리켜 외국인 관리 흉내만 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영남일보, 1996년 07월 16일자)

1996년의 경우, 구미지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구를 비롯하여 경북지역 전체에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논의는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여 관계 기관별 협력보다는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경찰 인력의 부족

과 특정 지역으로의 배치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외국인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도 경찰의 독점적인 역할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2) 2003년 : 외국인 범죄 흉포화

- 구미공단과 인접한 구미시와 칠곡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지난달 말 현재 구미시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포함해 4천900여명, 칠곡군에는 2천300여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으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들어 구미경찰서가 적발한 외국인 범죄는 중국인 4건, 베트남인 2건 등 모두 12건으로 이 가운데 7대 강력범죄로 분류하는 절도와 폭력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지난 7일 오전 1시20분쯤 칠곡군 북삼면 인평리 김모씨(여·58) 집에 세들어 살던 중국인 4명이 싸움을 벌이다 한쪽 입학동씨(28)가 조선희 장광장씨(3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오��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2000년 9월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로 전전하던 임씨가 지난 2월 자진신고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은 벗어났지만 임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구미경찰서도 지난달 30일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야간에 차량 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우즈베키스탄인 마트쿠지브 미사이드씨(20·구미 공단동)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마트쿠지브 미사이드씨는 연초 구미공단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5월 하순쯤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차량 부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 2001년 1월에는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산업연수생이 정신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10세 어린이를 유괴해 1천만원을 요구하다 26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달아날 경우, 몽타주를 작성하거나 휴대전화를 추적하는 기본 수사기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영남일보, 2003년 10월 11일자)

2003년의 경우, 외국인 범죄는 점차 흉포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불법체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금전취득의 욕구로 인한 각종 범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20대부터 40대의 연령에 해당되며, 범죄를 저지른 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도피·잠적할 경우 신원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그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즉, 구미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은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신원확인 및 소재파악의 곤란과 수사기법의 한계로 인하여 범죄 수사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11년 : 외국인도움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① 구미경찰서, 외국인도움센터 선정-다문화가족한 국사회 정착을 위해

• 구미경찰서(총경 김동영)에서는 2011. 4. 20(수), 09:30 ~ 10:30 까지 구미시 지산동 소재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인 죽향쉼터를 "외국인도움센터"로 선정하였다.

• 외국인도움센터로 지정된 죽향쉼터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다문화가정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범죄 피해신고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피해신고 등 각종 민원 내용을 수집 청취하여 전달하는 협력 치안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날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등 20명이 참가하였으며 외국인의 범죄예방 및 안전에 대한 간담회를 함께 실시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게 지역사회 주민일원으로서 국내 조기정착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였다(구미일보, 2011년 04월 21일자).

1332명을 각각 1명의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경주서 6368명, 구미서 5298명의 외국인을 4명이 담당하고 있다.

• 외국인을 담당하는 외사경찰관이 단 한명도 없는 지역은 고령군 1442명, 성주군 1064명, 영주시 819명, 상주시 819명, 울진군 812명, 청도군 621명, 문경시 584명, 의성군 493명, 영덕군 459명, 군위군 456명, 예천군 414명, 봉화 258명, 청송군 166명, 영양군 140명으로 나타났다.(NEWSIS, 2012-10-08일자)

2012년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외사경찰 인력부족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지역은 외사경찰관 4명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접 지역의 경우 외사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변화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DNA 및 지문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구미 지역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② 11년도 BEST 외국인도움센터 선정

• 구미경찰서에서는 경찰청 주관 11년도 "BEST 외국인도움센터"에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상담실적 379건(일반민원), 홍보 6건으로 전국 3위(경북청 1위)로 선정됐다.

• "BEST 외국인도움센터"로 지정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문화 피해여성 및 유학생·외국인 근로자등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범죄 피해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피해신고 등 각종 민원 내용을 수집 청취하여 전달하는 협력 치안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구미일보, 2011년 07월 12일자)

(5) 2015년 : 협력적 대응활동 전개

① 구미경찰서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 전국 최초 선포

이 시기 구미경찰서에서는 외국인도움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안전에 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 독자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안전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련기관의 참여를 통해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예방과 대응활동이 전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정수초등학교에서 상모사곡동에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로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치원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인선 경북도 경제부지사, 최중원 구미부시장, 김명훈 경북도 부교육감 등 주요기관장구미지역 기관단체 대표 및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이번 상모사곡동에 조성된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은 지난해 5월 구미시 구평동에 조성한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가 각종 범죄 감소 및 주민체감안전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정책과 외국인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매일, 2015년 06월 01일자)

(4) 2012년 : 경북경찰, 외국인 담당 경찰관 1명이 1369명 관리

•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 외국인을 담당하는 외사경찰관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서별 외국인 거주자 및 외사담당 경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외국인 6만5727명을 외사담당경찰관 48명이 관리해 외사담당경찰관 1인당 외국인 1369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칠곡서의 경우 외국인 3203명인 가운데 외사 경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산서의 경우 6686명의 외국인을 4명의 외사담당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1인당 2229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어 영천서 2206명, 김천서 1740명, 안동서

② 구미경찰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도내 최초 운영

• 지난 해 8월부터 전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던 다목적 기동순찰대는 올해 전국 30개서로 확대 됐으며 경북지역에서는 구미에서 최초 운영된다... 특히 구미 시내권 외에 최근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칠곡 석적 지역까지 집중 순찰할 계획이며, 성폭력 범죄 신고 시에는 순찰차 3대 이상이 출동해 피의자 조기 검거 및 피해자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행패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감한 단속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경북일보, 2015년 08월 17일자).

2015년 현재 구미 지역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목적 기동순찰대를 활용하여 강력범죄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치안봉사대에 참여시켜 외국인 인권보호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최근 추세인 국제화, 개방화, 급격한 인구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교류 등 국제이주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olice Science Institute, 2015: 289).

사회안전망의 실천은 국가와 정부기관의 중추적인 정치적·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연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토대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약자 및 잠재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의 보호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Kim, 2010: 216). 외국인 범죄에 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해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들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경찰 및 관련 기관,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은 사회안전망의 개념으로 구축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전담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물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는 경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 외국인 거주 인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인력의 배치는 자칫 활용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업무과중을 야기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경북지방경찰청의 등록외국인 수는 41,789명이며, 외사경찰 정원은 32명이다. 이는 외사경찰 1인당 약 1,305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의 1인당 893.4명, 제주청의 1인당 300.6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따라서 경북지역의 경우 외사경찰의 업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범죄의 유형과 국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2009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현황 및 동향 파악과 관찰지역 내 심층적 범죄정보 수집을 통한 범죄 우려자 색출을 주 임무로 하는 ‘외사조정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0). 그러나 국내 외국인 관련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외국인 범죄는 특정 기관의 전담 대응으로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이미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지역사회의 협력이 포함되지 못한 경우 예방과 대응에서 미흡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와 관리에 관하여 경찰 및 유관 기관, 지자체 등의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안전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경북과 구미 지역의 대응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경찰이 독점하여 대응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지부터 수사, 체포 등 다양한 활동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에만 의존할 수 없다. 경찰과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관리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경찰서 관할 구역 내에 체류 외국인이 1,000명 이상 거주지에 ‘외국인 밀집지역’으

로 선정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는 것이다. 2009년 166개의 밀집지역이 선정되어 이후 2009년 8월부터 기존 경찰서 단위 밀집지역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1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 5% 이상 지역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최근에는 ‘외국인 중점관리구역’을 36개로 확대하여 지방청 내의 관할 경찰서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최근에는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가급 밀집지역’과 ‘나급 밀집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선된 운영을 하고 있다. 가급의 경우 경찰서 내 등록외국인 7,0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4% 이상인 지역으로 전국 53개 경찰서가 지정하고 있다. 나급은 경찰서 내 등록외국인 3,5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비율 2% 이상인 지역으로 72개 경찰서가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Police Science Institute, 2015: 345). 그러나 단순히 인원이나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의 외국인의 실질적인 활동이나 방문 목적, 거주 목적을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경찰의 독자적인 업무처리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에서는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하여 경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밀집지역을 재설정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내 산업체 등의 협조를 통해 실제 취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체류 기간 내 외국인들의 보호도 가능하다.

넷째, 지역사회 외국인을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북·구미 지역의 경우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

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도움센터를 만들고 지역 내의 쉼터를 활용하여 민원을 수집·청취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안심마을을 선포하고 외국인과 지역사회 주민의 화합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전담 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 친밀하고 선제적인 활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은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일반 시민들은 외국인들이 실행하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북·구미 지역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지역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무부, 검찰, 출입국 관리소 등 최근 자료를 통한 통합적인 논의가 더욱 보완되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에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바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알림 글

이 논문은 2015 국가위기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함.

References

- Park, Dae Sik. 2009. Social Safety Nets Status and Policy Of Rural Elderly.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889-905.

Park, Soon Il. 2005. The Optimal Level and Structure of Social Safety Net in Korea. *Korea Social Policy Review*. 12: 137-192.

Cho, Chul Ok. 2003. *Police Administration*. Seoul: Daeyoung co.

Choi, In Sub and Young Shin Choi. 1994. Crime by Foreigners in Korea: Its Trends and Pattern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Gerber, B. J. 2007. Disaster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 Examining Key Political and Policy Challenges. *The Policy Studies Journal*. 35(2).

Kim, Chung Nam. 2009.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Seoul: Parkyoungsa.

Kim, Gyeong Nam. 2008. Reinterpretation of "Social Safety Net" to Introduced in Lee Myung-Bak Government. *Changwon Square*.

Kim, Jang Gi. 2009. The Searching for Social Safety Net in National Policy: Focusing on the Integrated Perspective.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3(4): 211-230.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Annual Report. 2014.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Annual Report*.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Foreign • Investigation Affairs, National Assembly Submissions.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2004. *Police Affairs*.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Lee, Ju Ho. 2010. A study on Social Safety Net for Disadvantaged Social Class-focused on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n Korea.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4(2): 67-81.

Police Science Institute. 2015. Peace prospects 2016. *Police Science Institute*.

<http://www.coopercenter.org/demographics/history-social-safety-net>

<http://www.gbpolice.go.kr/>

<http://www.gmilbo.net>

<http://www.index.go.kr>

<http://www.kyongbuk.co.kr>

<http://www.kyongbuk.co.kr>

<http://www.law.go.kr>

<http://www.newsis.com>

<http://www.yeongnam.com>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경찰대학. 2004. 경찰외사론. 경찰대학.

경찰청. 2014. 외사수사과 국회제출자료.

김경남. 2008.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사회안전망” 정책의 재 해석. 강원광장.

김장기. 2009. 국가 사회안전망 정책의 탐색 :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3(4): 213-230.

김충남. 2009. 경찰학개론. 박영사.

박대식. 2009.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89-905.

박순일. 2005. 한국 사회안전망의 위치와 적정수준 및 구조의 모색. *한국사회정책*. 12: 137-192.

이주호. 2010.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연구 :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 4(2): 67-81.

조철옥. 2003.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최인섭, 최용신. 1994.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4.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전망 2016. *치안정책연구소*.

<http://www.coopercenter.org/demographics/history-social-safety-net>

NEWSIS. <http://www.newsis.com>

경북매일. <http://www.kyongbuk.co.kr>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

경북지방경찰청. <http://www.gbpolice.go.kr/>

구미일보. <http://www.gmilbo.net>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

통계청. <http://www.index.go.kr>

Received: May. 10, 2016 / Revised: May. 19, 2016 / Accepted: May. 23, 2016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

– 경북·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북지역과 구미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통계청 및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의 발생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경북지역의 주요 언론의 신문기사를 활용하여 그 동안 해당 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기사를 재분석하고, 특정 시기별로 범죄 대응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에 비해서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외국인 인구를 고려한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외국인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 외국인 범죄, 안전네트워크, 외국인 밀집지역, 외국인 전담 창구

Profiles **Min Sang Cho** : He received his B.A., M.A., Ph.D. from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in 2013.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Police Administration at Baekseok University. His interesting subject and field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personnel management, police education,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police01@bu.ac.kr).